

「耽羅別曲」解題

「탐라별곡」은 4권 2책의 「迂軒集」附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총 120행 240句로 이루어진 歌辭작품이다. 우헌집은 선조 25년(1849)부터 2년동안 제주목사로 있었던 鄭彦儒의 未刊文集인 筆寫本이다. 여기 소개하는 것은 尹錫昌氏 所藏인 우헌집부록속에 수록된 「탐라별곡」이다. 이 우헌집에 수록된 것 외에 異本으로 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도선관에 두루마리로 적혀 「탐라별곡」이 전하는 것이 있다. 여기서는 윤석창씨 所藏本の 「탐라별곡」 全文과 정신문화연구원 두루마리本을 일부 소개하고 별도로 활자화하여 소개한다. 실학사상의 영향하에 현실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인 내용을 담은 「탐라별곡」은 조선조후기에 대두된 사실시조의 사실성과 풍자성, 고소설의 평민의식의 발로 평민가사의 사실성과 동계이면서도 양반가사인 점에서 문학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논의되고 있다.

耽羅別曲

耽羅 嶺都邑이 몇千年基業인고
星主王子 지난後에 物換星移오리도다
城郭이 곳쳐스니 人民인들 냇갓홀손가
聖朝의 臣屬되미 命吏를 보너시니
한조각 彈丸小島 大海에 셔잇난터
三邑을 分置하여 솟발갓치 버려시니
山南은 兩縣이오 山北은 州城이라

土地난 그일마며 民物도 壯大하다
 營門을 陞設하고 名位를 重히하야
 節制使 兼防禦使로 一島를 彈壓이라
 寧海에 차던印綬 시使君께 傳掌하고
 行李를 收拾하여 嶺湖로 도라와서
 諭書를 압서오고 重溟을 겨우건너
 禾北鎮 下碇하여 東城門 도라드니
 閭閻이 雜錯한데 四隅에 石牆이오
 街路가 廣平한데 兩行에 楊柳로세
 左右를 돌너보니 壯麗할손 公廡로다
 觀德亭 넘히안저 壯士의 禮貌밧고
 殿牌에 肅拜하며 斧鉞을 손에쥐니
 公然한 白面書生 大將의 威儀로다
 延曦閣 잠간쉬여 巡歷길 밧비나서
 海方도 돌너보며 風俗도 살펴보니
 어엽불사 우리百姓 무삼일노 偏苦하여
 衣食이 艱窘하니 興味가 잇슬소가
 八陽足踏 겨우하야 薄田을 耕作하니
 자른허미 적은보십 辛苦히 매갓구어
 五六月 盡力하며 西成을 바라더니
 造物이 忌劇하고 天時도 그릇되여
 惡風과 甚한 霖雨 히히마다 孔極하니
 田畝를 도라보면 兵馬로 짓발분듯
 各穀을 돌너보면 鐵鞭으로 짓밧난듯
 남은 이삭 주어너니 빈섬풀뿐이로다

耽羅別曲

무엇으로 公債값고 엇지구러 살어갈고
거리거리 모단飢民 駕轎잡고 일는말리
설러울산 우리性命 나라헤 달녓스니
流民圖 왕겨다가 人君 기신티 알외고져
가죽옷 풀戰笠이 이무산衣冠인고
모밀밥 橡實粥이 그무산飲食일고
歲歲에 國恩입어 羅鋪移轉虛費하니
請粟도 낫치업고 生計도茫然하다
牧子一族 鮑作구실 이에서 더설우며
船格의 貿易무리 그안이 難堪한가
滄溟이 限隔하고 邦禁에 嚴截하니
살곳에 못가기난 紆于山 언식갓도다
슬푸다 너의艱苦 너어이 모르리오
힘티로 救濟키난 官長에게 미였스나
견티어 지너기난 네마음에 달엇시니
글일사록 惕念하야 常히 心性을 保全하야
天恩을 닛지말고 父子兄弟 相愛하면
玉皇이 구버보셔 福祿을 주시나니
窮困을 恨치말고 네道理盡心하면
其中에 榮華잇서 貧賤을 버셔나니
넛時節 도라보면 그안니 알일인가
三聖神 소사난後 民俗이 淳和하니
歲事도 豐登하고 人畜도 蕃盛하여
집집이 橘林이오 곳곳이 駿馬러라
御乘도 예서나고 祭牛도 예서나니

國畜도 盛커니와 私屯인덜 적을손가
 飛龍갓흔 宛馬種은 各牧場에 가득하고
 黃金갓흔 洞庭橋은 公私園에 쏘닌난다
 和平한 別天地를 前古에 일너스니
 조흔 썬 그 世界에 너희처럼 서리하라
 하물며 漢擎山은 天下에 일흠 잇서
 瀛洲가 奇異힘이 三神山의 하나이며
 老人星 발근光彩 壽域을 여러노코
 金剛草 푸른빛치 白髮을 검게하니
 넷날의 秦皇漢武 못보아 遺恨이라
 너희난 仙分조하 이곳에 生長하여
 瀛室을 곁헤두고 白鹿潭 우헤안져
 流霞觴 가득부어 老仙과 酬酌하니
 烟火食 不關커든 念慮 잇슬소가
 닳톨것이 무엇이며 求할것이 무엇시니
 늣흔峰 올너서서 塵土를 구버보면
 큰바다 잔만하여 世上이 春夢이라
 그가운데 잇난사람 營爲하기 可笑로다
 山房을 불작시면 빈결만 基址잇고
 土城을 살펴보면 넷陣터 잇서시니
 萬事를 헤아리면 뉘아니 헛되리요
 金方慶 崔瑩將軍 왓던踪跡 그뉘알며
 李景文 三別抄난 叛亂만 지여잇네
 九鎮이 버러잇서 防守를 申飭하미
 兵器도 精巧하고 武士도 壯健하니

耽羅別曲

異國이 아여엇본덜 나리 못거너리라
軍餉도 업건만은 天塹이 밋부도다
閑漫한 營中公事 開閉門 쏜이로다
차라히 막디잡고 勝地나 遊賞하러
翠屏潭 題名하고 登靈區 차자가셔
流觴曲水 노리하며 追雉산양 시작하네
妓女의 歌管소래 仙樂과 和答하리
天風에 놀는 笙鶴 半空에 나리오니
世緣을 다 썰치고 青海을 더널뵈미
赤松子 安期生을 거의서로 만날너니
王事을 못닛져서 驅點을 시작이라
十二場 차례지어 往來하며 보살피니
무리무리 모단말이 구름인가 비단인가
壯觀이 어더하기는 山馬點烙이로다
木柵을 구지겻고 一時에 도라내니
나난듯 뛰노난듯 巖谷이며 林藪로다
북소래 旗幟빛헤 山獸조차 니다라니
豪健한 모단將校 닷토와 재조뵈다
獐鹿도 만커니와 武勇도 壯하도다
一場에 勝훈로움 보기도 조커니와
民情을 히알리니 心膽이 아득하여
悄悄히 도러와셔 臥仙閣의 비겨드니
無端한 찬비발암 橘園에서 이어나네
試驗으로 자든숨을 놀나깨여 일어나셔
望京樓 넘흔欄干 의지하여 멀이보니

바다빛 아득한대 長安이 머릿서라
瓊樓玉宇 渺漂한곳 우리인군 치우신가
孤臣의 숨은근심 到處에 밋쳤시니
어나씨 順風만나 險海를 利涉하여
이곳에 物情民憂 細細히 알외고져
嘿嘿히 혼자안져 百가지로 思量하니
술이나 盡醉하여 한째나 이즈리라
盃一盃 復一盃을 無盡無盡 먹어스니
睡鄉인듯 醉鄉인듯 客懷世慮 有無間에
바람길 畫角聲이 玉簫仙을 接하난듯
恍惚한 이내몸이 華胥天에 와잇년가
塵客인가 仙官인가 귀뉘라셔 分辨하리
어와이령 저령지내니 萬斛실음 다푸러바리거다